



# 현대적 출산환경, 무엇이 문제인가?

박 문 일  
대한대학교연구회 회장, 한양대학병원 산부인과 교수

1800년대 말 근대적 의료기술들이 소개되기 시작하였고 1900년대 중반에 이르러 비로소 현대적 의료라고 불릴만한 것들이 소개되었다. 이 시기 이후 세계적으로 분만환경에도 많은 변화가 있게 되었다. 이 시기에 유럽에서 소개된 것들의 대부분은 미국을 거쳐 우리나라에 소개되었다. 이 시기에 우리나라의 의료선각자들의 대부분은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었으며 이분들이 고국에 돌아오실 때 이러한 “선진 의료기술”들은 별 여과없이 받아들여졌다. 분만환경도 예외가 아니다. 미국조차 분만환경이 서서히 변화하고 있는데, 이시기에 신기술로 소개된 산과적(産科的)의료기술들은 요즘 유럽에서는 점차 자취를 감추고 있는데 반하여 우리나라는 아직도 요지부동, 변화할 줄을 모른다.

현대적 분만실의 풍경을 한번 돌아보자. 분만과 관련된 산과적 의료기술에서 우선 수술이 등장하게 되었다. “회음부의 상처를 깨끗하게 만들자”는 회음절개술이 대표적이다. 그 다음으로는 온갖 약물요법이 등장하게 되었다. 진통억제제 또는 진통촉진제가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무통을 목적으로 한 마취법도 개발되었다. 이에 따라 분만자세도 변화하게 되었다. 대부분의 병원의 분만대기실에서 쓰이는 보통 방법은 진통중에 등대고 침대에 누워 있게 놔두거나, 베개를 이용해서 옆으로 기댄 상태이다. 이 자세가 도

입된 것은, 의료진이 관찰하거나, 약물 주사하거나 마취제를 투여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그런 후에 정확한 분만 시간 바로 전에 임산부들은 분만실로 이동되고, 역시 반듯이 높게 하는 분만용 침대로 옮겨지고, 분만으로 들어간다. 분만과정은 또한 어떠한가. 흡입기를 사용하는 흡입분만, 집게같은 검자를 사용하는 검자분만이 성행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물론 회음절개술은 다반사로 시행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다분히 의료사고에 대한 방어진료성향 때문에 제왕절개술도 흔하게 이루어진다.

분만과정의 주체였던 임산부는 객체가 되었으며 이제는 분만실의 주인은, 주체는 의료진으로 바뀌어졌다. 의료진의 명령에 따라 모든 분만과정이 이루어지고 종결되어진다. 즉 분만자가 아닌 분만수행자가 모든 과정을 조절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아직도 많은 병원들이 분만자세의 선택이 관례적인 병원 방침에 의해 이미 결정되어져 있다. 전공의들의 분만에 대한 교육은 누운 자세에서 훈련되어지고 있으며, 이를 보고 배우는 학생들도, 간호사들도 무심코 이것이 현대적 의료라고 배우고 곧 이를 시행하게 된다. 미국에서는 특히 진통중의 태아 심음과 자궁수축을 측정하려 애쓴다. 이런 장치를 사용하는 이유는 의료분쟁시에 대비하여 첨단기계를 사용하였다는 증거를 남길 뿐 임산부들에게는 별 도

움이 없었다는 논문들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미국에서는 진통중 지속적인 태아감시장치를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장치는, 임산부가 누운 자세에서, 가능한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하여야 태아 심박동 신호를 잘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임산부들은 움직일 때도, 돌아누워야 할 때도 의료진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역설적으로 태아의 건강을 검사한다는 목적으로 도입된 이러한 기계들이 오히려 임산부와, 결과적으로 태아를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이다. 가장 태아의 생체신호가 가장 잘 들어오는 자세가 임산부가 똑바로 누운 자세이기 때문이다.

진찰하는 자세는 또 어떠한가. 대부분의 의사들은 임산부가 등을 대고 누운 자세에서 주기적인 질 검사를 하도록 훈련되어 있다. 질 검사는 출산이 진행되어가고 있을 때는 그다지 유용하지 못하는데도 너무 자주, 많은 사람들에게 의하여 시행되는 것도 문제이다. 산모가 상체를 세운 자세에서도 진찰은 충분히 편안하게 행해질 수 있는데, 우리 의료인들은 너무나 익숙하게, 별 관심 없이 산모를 반듯이 눕게 하고 진찰한다. 이것도 역시 의료인 편익주의적인 발상이다.

고통을 줄여주는 약들도 더욱 늘어나고 있다. 분만 중 여성이 부동 상태이고, 똑바로 누운 자세에서 힘을 줄 때, 자연스러운 과정은 기본적으로 방해받게 되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 이것을 용감하게 버릴 수 있는 분만환경이 진정한 현대의료가 된다.

여성에게 출산하는 것은 흔히, “강한 진통”과 “큰 아픔”, “지속적인 노력”, “많이 참는 것” 등의 단어로 표현된다. 이러한 단어의 의미는 가히 공포스럽다. 다른 일반 여성들에게도 이러한 표현은 출산까지의 과정을 아주 무시무시하게 표현한 것이 된다.

대부분의 여성은 분만에 관하여 사회에서 가르쳐준 지식으로 분만에 임한다. 그 대부분의 지식은 바로 위에 언급한 단어들로 귀결된다. 가르치는 여성이

나 가르침을 받는 여성이나 그 대부분은 무심코 사회에서 또는 첨단 현대의료기술을 갖춘 병원에서 가르쳐 주는데로, 또는 지시하는데로 분만에 임하며, 이에 따라 무심코 고통을 줄이려 개발된 현대의학의 힘을 빌리려 한다. 이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무너지는 것은 바로 “자신이 스스로 고통을 조절 할 수 있는 힘과 신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이다.

사실 대부분의 여성들이 분만에 대하여, 무엇이 올지, 어떠한 상황이 벌어질 지에 대한 공포심만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을 절대로 맞출 의도는 없다. 문제는 대다수의 여성들이 자신 신체 내부의 자생적인 극복력을 너무나 무시한다는 것이다. 많은 여성들에게 출산에 대한 희망을 물어보면 “고통이 없도록 해주세요”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실, “출산과정은 자신의 노력에 의하여 얼마든지 바뀌어 질 수 있다”라던가, “노력만 한다면 충분히 마취없이 낳을 수 있다”라던가, “출산에 관한 한 여성은 위대한 힘을 갖고 있다” 등등의 조언은 허무하게 들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자. “출산이란 자연적인 현상이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생각해보자. 대부분의 여성은 “의학적이고 현대적인 기술이 출산을 더 쉽게 더 빠르게 덜 고통스럽게 할 수 있는 데, 왜 필요없이 고통을 느껴야 하는가” 하고 묻는다. 여기에 대하여 물론 간단하게 대답할 수는 없다.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 그 여성의 권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 걸음 물러서서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지 않은가? 모든 산과적 기술은 임산부의 몸에 약물이나 같이 닿는 것이고, 이 외중에 회복할 수 없는 합병증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어떠한 의료기술이더라도 자연적인 상황에 중재를 가하는 기술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의료기술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자연적인 상황을 거스르는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성의 “출산”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다. PPK